

## **Dear Beloved Partners,**

We are so thankful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on our behalf. A few surprises headed our way in January 2022. Josiah returned from his YWAM DTS outreach in Egypt. We drove to drop off things for Josiah in quarantine and stopped by to have dinner near Prisca's school. After dinner, Aquila collapsed and threw up profusely outside the restaurant and was so dizzy he could not walk or get up. He went into emergency and was admitted into the hospital, after 4 days, we asked the doctor to be discharged to recuperate at home. Aquila has been watching his diet and exercising. His dizziness is almost all gone but flares up once in a while when he walks but does not affect his daily activities. We thank God for his slow recovery.

Aquila was able to drive by himself to the O.D. Rehab.Center to preach at the end of February though he was not 100% better. The men were so happy to see Aquila because he had to miss 7 weeks because he was sick. PTL for God's healing hand! Now Aquila goes to the O.D. Rehab Center about once a week depending on whether other M's sign up or not. We thank God that these men can grow in their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Some of these men have become assistant pastors(JDS) while attending seminary and serve in small churches.

Prisca is still commuting long distances every day to teach at the satellite MK school. Out of her 9 middle school students, 4 are MK's and Lily now loves the LORD and isn't as negative & skeptical against GOD. Thank you for your prayers. Also the other students were all atheist or idol and ancestor worshipers but now know God. Some of them love the LORD and accepted Jesus, a few are very open and pray to the one true God with their requests.

All throughout the Bible, God is concerned about the widow, orphans, and the alien living near us. Because we do not know too many orphans, widows, and aliens, we excuse ourselves from obeying this command. But we must obey the principles of looking after the weak, the hurting, and marginalized no matter where we live. Look and see and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plenty of MK's and PK college students who have no place to go during long breaks. Maybe someone in your church is struggling financially, we are commanded to not take all of the crops when harvesting but to purposely drop and not glean to the end of our fields. What an amazing God we serve! The poor and neglected can go and pick up food to eat without even losing their dignity or pride. We serve a loving & compassionate GOD!

We were privileged to give to a small church here for Christmas, provide temporary housing for a few MK's in America during winter break (offering was given from a successful MK), as well as give gifts to those at the Rehab Center for Christmas, and give to ministries in need. We are still meeting in our home on the LORD's Day with 6 members. Please pray for Jay's father to come to know the LORD.

**Falling more & more in love with Him,  
Aquila, Prisca, & 4 boys (March 31, 2022)**

##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에 몇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주성이는 이집트에서 YWAM DTS 선교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성이가 있는 격리호텔에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오면서 저녁시간이 되어 브리스길라의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 후 아굴라는 식당 밖에서 쓰러져 심하게 토했고 너무 어지러워서 걷거나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기상황에 처해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으며 4일 후 의사에게 집에서 회복을 위해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아굴라는 음식을 조절하며 간단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은 거의 사라졌지만 걸을 때 간헐적으로 발생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굴라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굴라는 O.D. 중독재활원에까지 혼자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2월 말에 설교를 했지만 100%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아굴라가 아파서 7주를 결석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굴라를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친유의 손길에 감사찬양 드립니다! 이제 아굴라는 중독재활원에서 다른 M의 설교신청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형제들이 구세주 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신학교에 다니며 전도사가 되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전히 MK 분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매일 장거리를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9명의 중학생 중 4명은 MK이고 릴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일부는 마음이 열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우리 근처에 사는 나그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주변에 없기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약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알고 보면 긴 방학 동안 갈 곳이 없는 MK와 PK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추수할 때 모든 곡식을 쥐하지 말고 일부러 떨어뜨리고 밭 끝까지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존재감이나 자존심을 잃지 않고 음식을 구하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단절을 위해 이곳의 작은 교회에 현금을 하고, 겨울 방학 동안 미국에 있는 몇몇 MK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특권(성공한 MK의 현금으로)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성단절을 위해 중독재활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직 6명의 식구들과 함께 주일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을 알수록 더 사랑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함영, 성민**